체험형 맛집.

밥만 맛있으면 되나요, 특별한 체험도 곁들이세요

농부의 식사부터 맥주 체험까지
치즈 체험부터 마녀 요리까지
고성에서 맛 보는 슬로우 푸드 키친부터 기차 타고 즐기는 브런치까지

맛집 따라 목적지를 정하거나 여행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일이 되었다. 스위스 관광청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 바로, '체험'이다.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7 년부터 '다시, 자연의 품으로(Back to Nature)'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. 하지만 '향토음식'처럼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, 가장 스위스다운 자연과 문화 속에서 가장 스위스다운 체험을 하며 '특별한 한 끼를 체험'할 수 있는 곳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.

1. 농부의 식사
스위스 곳곳에 있는 농가에서는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. 이런 농가를 찾아 하룻 밤 숙박을 하고 맛보는 아침 식사는 그 무엇보다 특별하다.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농가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찾아 보아도 좋다. 루체른 근교의 슈토오스(Stoos)나 모르샤흐(Morschach)에는 특히 농가형 숙박 업체나 레스토랑이 많다. 레만(Léman) 호의 와인 산지, 라보(Lavaux) 중 뀌이(Cully) 마을에는 르 빈니(Le Vigny)라는 민박집이 있는데, 포도밭과 호수를 바라보는 테라스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.

2. 맥주 체험
스위스는 마이크로 브루어리 문화가 발달한 나라답게, 도시마다 직접 양조하는 바가 많다.
베른(Bern)에서는 베른의 맥주 문화를 따라가 보는 가이드 맥주 투어가 있다. 맥주 트레일을 따라 맥주 소믈리에와 함께 향긋하고 맛 좋은 베른 맥주를 다양하게 시음해 볼 수 있다.
특산 맥주로 유명한 스위스의 향토 마을, 아펜첼(Appenzell)에서는 맥주 박물관도 찾아볼 수 있다.
브라우쿠욀 아펜첼(Brauquöll Appenzell)에서는 아펜첼 맥주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다.
투어가 끝나면 아펜첼 맥주를 구입해서 피크닉을 떠날 수도 있다.

3. 치즈 체험
리기(Rigi) 산 정상에서 20 분 정도만 걸어 내려오면 치즈 농가인 샤제렌홀츠(Chäserenholz)가 있다. 호수와 알프스의 풍경이 한 눈에 담기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농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, 치즈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다. 투숙객이 아니어도 농가에 들러 CHF 2 의 입장료만 내면 구경도 하고, 농가 치즈도 구입할 수 있다. 로컬들이 치즈를 사러 들르는 곳이다.

4. 마녀의 요리
수리수리 마수리~ 거대한 불이 지펴지고, 마녀 모자를 쓴 한 사내가 불 속에 마술 가루를 뿌려댄다. 루체른 근교에 있는 엔틀레부흐(Entlebuch) 생물권 보전 지역의 에숄츠마트(Escholzmatt) 마을에서 벌어지는 풍경이다. 스위스에서는 "엔틀레부흐의 마녀"로 불리는 고미요(GaultMillau) 점수 17 점에 빛나는 셰프, 슈테판 비즈너(Stefan Wiesner)가 그 주인공이다. 그는 여름이면 주방을 야외로 옮긴다. 그가 만들어내는 요리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면, 뢰슬리(Rössli) 레스토랑을 찾으면 된다.

Switzerland Tourism
13Fl.,Dongbu Dadong Bldg.,Da-Dong, Jung-Gu, Seoul, Rep.of Korea, Telephone +82 (0)2 3789 3200 Fax +82 2 3789 3255,
www.MySwitzerland.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.

5. 고성에서 만나는 자연 요리

1557 년 보덴제(Bodensee) 호숫가, 로르샤흐베르그(Rohrschacherberg) 언덕에 지어진 고성, 바르테그(Schloss Wartegg)는 1994 년 다채로운 문화를 겸비한 우아한 호텔로 변모했다. 고성의 정원에는 스위스의 생물다양성보호조직인 '프로스피시라라(ProSpecieRara)'가 인증한 고대 곡식이 자라고 있다. 이 곳의 레스토랑에서는 제철 재료를 사용해 슬로우 푸드를 선보인다. 손님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. 꽃 칵테일도 아름답다.

6. 기차 타고 브런치

앞 코가 뾰족해 "빨간 화살"이라는 별명이 붙은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일요일 브런치를 즐겨볼 수 있다. 취리히(Zürich) 기차역에서 출발해 약 3 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으로, 다시 취리히 역으로 돌아온다. 다양한 빵, 버터, 잼, 꿀, 콜드 컷, 치즈, 훈제 연어, 계란, 베이컨, 비르허뮈슬리(Birchermüesli), 과일 샐러드가 풍성하게 제공되고, 오렌지 주스 한 잔과 생수 한 잔도 제공된다. 커피와 티는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. 게다가 운전석을 구경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더욱 특별하다. 한 달에 딱 한 번만 운행하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해야 한다. 기차 여정은 매달 달라진다.

자료제공: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.MySwitzerland.co.kr

Switzerland Tourism
13Fl.,Dongbu Dadong Bldg.,Da-Dong, Jung-Gu, Seoul, Rep.of Korea, Telephone +82 (0)2 3789 3200 Fax +82 2 3789 3255,
www.MySwitzerland.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.